

천연물 기반 바이오소재 산업 선도 남원시, 지방재정대상 '우수'

남원시,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등 핵심 거점 조성 본격 착수

남원시는 17일 노암산업단지에서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천연물 기반 바이오소재 산업 선도할 핵심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착공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남원시가 그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는 민선 8기 이후 바이오산업을 지역 성장산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천연물·식물소재 중심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 인프라 확충 △연구·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남원·지리산권 자원생물을 활용한 안정적인 바이오소재 원료 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디지털 정밀 재배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특히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천연



남원시는 17일 노암산업단지에서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천연물 기반 바이오소재 산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물 기반 첨단 소재 발굴, 지표물질 고도화 분석,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추진되는 노암산업단지는 바이오 원료 생산시설, 화장품 제조시설, 바이오 기업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이번 착공을 계기로 남원 바이오산업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로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본 사업의 핵심 시설인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는 2024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건축면적 약 1,900㎡, 연면적 약 3,800㎡ 규모로 조성된다.

융합센터에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에 대한 환경제어 및 성분 표준화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 실증 연계 연구 등이 이뤄져 안정적인 천연물 기반 첨단 소재 공급과 산업 간 밸류체인 구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시·체험 공간, 첨단 바이오소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산업과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무총리상 수상...유류자산 활용 재정 혁신·인구소멸 대응 성과 거둬

남원시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교부세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국무총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에 수여된다.

남원시는 예산절감 분야에 방치된 건물의 기적, 인구소멸지역 방문 증가와 예산절감"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으며, 활용되지 못한 유류·방치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생해 지역 방문객 증가와 재정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원시는 그동안 인구감소와 지역 침체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방치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공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공간 기능을 재설계에 필요한 건립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자산 재활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가능한 우수 사례로 주목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의 사례는 기존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한 모범적인 지방재정 운영 사례"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원시 안순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유류자산을 활용해 재정 혁신과 인구소멸 대응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결과로, 확보한 교부세 인센티브 5억 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산타축제' 더 풍성해진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임실치즈페스티벌에서 열리는 임실 산타축제가 지난해 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관광객 편의를 최우선하는 교통체계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올해 산타축제는 놀이와 체험 중심이었던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즐길거리에 어울리는 다양한 먹거리를 축제장 곳곳에 체계적으로 배치해 방문객들이 이동 동선에 따라 편리하게 겨울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 간편 먹거리 존을 구역별로 체계화해 지난해보다 먹거리 종류와 운영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수험생을 포함한 청소년층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통편의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군은 지난 10월 임실N치즈축제 개막 첫날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대거 몰려 역대급 교통대란을 방불케 한 상황을



감안, 이번 산타축제에는 더욱 철저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관내 셔틀버스는 기존 3개 코스 8대에서 14대로(제1코스 임실터미널 맞은편, 제2코스 갈마제철창고, 제3코스 임실역) 대폭 확대해 축제장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조정희 순창군의원, 판소리 5대 명창 선양사업 촉구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17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창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판소리 5대 명창 선양사업'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의 정수"라며, "특히 순창은 서편제와 동편

제의 분향으로, 판소리 5대 명창을 배출한 실질적인 판소리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판소리 성지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진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용역 실시 이후 전수관 건립은 물론 전승을 위한 기본적인 강사비조차 편성되지 않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지금 이 순창 판소리 부흥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집행부가 즉각 추진 의지를 갖고 사업 규모 확대와 일정 재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확보 '청신호'

순창군이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30% 확보에 청신호를 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와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지방하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지방하천정비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및 유공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중심으로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군은 선도적인 하천 관리 업



무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나서

남원시는 지난 15일, 추생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됨에 따라, 즉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응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살처분 참여자, 방역 관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선별 및 관리조사서 작성 △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교육 및 지급 △고위험군 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10일 동안의 증상 모니터링을 안내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의심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발열, 근육통, 인후통, 안과 증상(결막염 등)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남원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케이크 등을 제조·조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제조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원료 및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특히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해당 생화가 식품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제조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지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